

성령을 따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 5장 16절]

♣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보혜사, 진리의 성령 등의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 죄와 사망으로 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번잡한 일상의 탈출, 방종과는 구별됩니다.
- 할례와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Q.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라고 소개 하십니다. 즉 (자유자)라고 하십니다.
결국 자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Q.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진리는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는 쉬워도, 어려워도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의 말 안에 거한 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한 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거주 하는 우리 ➡ 주님의 참 (제자) 가 됨 ➡ 제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진리를 풍부하게 경험하게 됨 ➡ 비로서 (자유)를 누림

♣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 성령님을 따라 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 가장 큰 유익은 (자유) 를 얻는 것입니다.

2.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전 2:13 ~14 읽어봅시다)

- 지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도우십니다. 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나를 하늘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과 종의 멍에를 메고 살게 하는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방황에서 멀어지는 복을 누립니다.

3. 하나님을 (아버지) 라 부를 수 있게 된다. (갈4:6 ~ 7 을 읽어봅시다)

- 성령님은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오십니다.
- 성령님이 마음으로 오시면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을 창조 하십니다. (롬 8:15)
- 그때부터 진짜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사람이 생깁니다.

진짜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의 감동을 따라 삽니다.

4.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 완성됩니다. (갈 5:22 ~23 읽어봅시다)

- 9가지 성품을 적어볼까요?

Q. '감동' 이 무엇일까요?

- 감동은 (영화를 보다 울컥한 것 /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행동할 때 마음에 얻어지는 것) 입니다. 감동은 (갑자기 돌발적인 순간 / 말씀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감동을 따라 사는 것은 마음을 따라 사는 것과 같습니다.

♣ 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나?

1. (**박해**) 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 4:29 읽어봅시다)

2.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절차, (**통과의례**)를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소서 4:21 ~ 24 읽어봅시다)

- 통과의례 1. 반드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안에 있습니다. 진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 통과의례 2. 진리의 가르침이 새겨지고, 내 안에서부터 옛사람이 벗겨져야 합니다.

- 통과의례 3.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3. 율법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 5:1 읽어봅시다)

- 그때의 마음은 십자가가 세워진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담긴 마음, 성령님의 가르침이 담긴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스로 다시 종의 멍에를 집니다.

그러나 자유자는 다릅니다. 진리의 가르침이 새겨짐 마음으로 삽니다.

종들은 머리가 마음을 지배하지만 자유자는 마음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마음이 머리를 지배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삶 !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렵지만 ,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누리는 행복이 더 큼니다.

이 행복을 꼭 누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